

정신분석학과 조형에서의 무의식 욕구 분석

- 현대 공간디자인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

Psychoanalytic approach and unconscious human desires in art and design

- A focus on its application to contemporary space design -

이정민* / Lee, Jeongmin
홍의택** / Hong, Euitaek

Abstract

20th century was the age of Modernism which was based on rational side of human mind. However, with the fall of Modernism, also came the fall of rationalism's dictatorship. Now, we see the pursuit and quest of irrational thinking as a new possibility of human expression which actually was already begun by Dada and Surrealism in early 20th century. It was facilitated by re-evaluation of Freud's psychoanalytic theory at the end of 20th century.

This paper researches psychoanalytic approach applied to the analyses of unconscious human desires in art and design, especially its application to contemporary space design. These designs represent, without making any ethical evaluation, the fact that those unconscious desires are part of inborn human nature and the fact that 21st century is heading toward open society which embraces diverse values and possibilities. By analyzing irrational tendencies in contemporary space designs, this paper aims at proving the meaning and value for one of new directions in 21st century space design.

First chapter is an introduction. Second chapter studies Freud's psychoanalytic theory. Third chapter examines the psychoanalytic methodologies with which unconscious desires are expressed in art and design. Fourth chapter classifies the types of subconscious desires expressed in contemporary space designs and analyzes their case studies. Fifth chapter is the conclusion.

키워드 : 정신분석, 무의식 욕구, 공간디자인

1. 서론

1.1. 연구배경과 목적

이성적 체계가 중심이 되었던 모더니즘의 조형 사조는 20세기 동안 기계문명과 과학적 사고의 지배 아래 조형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모더니즘의 붕괴와 함께 이성적 체계에 대한 반동으로서의 비이성 체계에 대한 탐구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1990년 이후부터 그동안 심리학에서 비판의 대상이었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무의식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여러 비판을 받으며 수정된 이론들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심리치료와 성격, 이상심리를 이해하는데 크게 공헌하였으며 예술, 문학, 역사, 교육 등 현대 정신사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본고는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방법론과 연구결과론이 조형에 도입되는 방식을 연구하고 이에 의거하여 무의식 탐구경향이 현대 공간디자인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모더니즘의 이성과 기능성(20세기의 화두)을 벗어난 현대 디자인에 있어 인간성의 표현(21세기의 화두)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인간성을 표현하는 디자인은 현재 감성디자인으로 불려지고 있지만 실상 인간의 비이성적 측면은 의식적인 감성뿐만이 아니라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연구하는 것은 미래 디자인의 방향성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기본욕구를 성추동과 공격추동으로 보았고 이를 통제하고 적절하게 충족하는 방법을 터득해 가는 과정이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그의 이론이 성악설에 기반하여 인간에 관한 비판적인 입장에서 출

* 정회원, 강원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겸임교수

** 정회원, 강원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조교수

발한다고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는 성이나 공격적 추동같은 생물학적 욕구가 부정적이라고 보는 도덕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비판이며 이런 욕구 그 자체는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아니며 인간이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본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¹⁾ 본고는 이후자의 입장을 지지한다. 현대 공간디자인의 무의식경향 작품들을 도덕적인 가치판단이나 모더니즘 시각에서 보면 ‘추악하거나’ ‘쓸모없는’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만든 디자이너들은 자신들의 디자인에 표현된 기본적인 욕구들의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떠나 그 모습 자체가 인간이 타고난 인간성의 한 부분임을 나타내고 있다. 모더니즘의 절대적 가치판단 기준을 벗어난 현대사회는 이런 다양한 가치와 가능성을 수용하는 개방된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목적은 이런 개방된 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인간의 무의식 욕구에 대한 표현경향을 분석해 봄으로써 21세기 공간디자인이 나아가고 있는 다양한 방향성의 한 추이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12. 연구내용과 방법

먼저 2장에서는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 대해 정리하여 공간 디자인에 나타난 무의식탐구 경향의 분류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3장은 정신분석학적 접근에 의해 무의식이 조형에 도입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4장에서는 2장의 분류기준과 3장의 방법론을 기반으로, 현대 공간디자인에 나타난 무의식 욕구의 표현유형을 분류하고 작품사례를 분석한다. 5장은 결론으로 본고의 의의 및 미래의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본고는 문헌연구와 작품사례 분석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채택한다. 관련 미술사조들, 방법론, 조형언어들에 대해 미술사 문헌들을 참조한다. 심리학이론에 대한 연구도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이들 조형예술과 심리학으로부터 유출된 분석기준이 공간디자인 작품을 분석하는 근거가 된다.

2. 정신분석학과 무의식

2.1. 심리적 결정론

정신분석이론은 프로이트에 의해 시작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방법이고 치료기법이며 동시에 성격이론이다. 그는 사람의 일상적인 행동이나 정서표현, 성격의 표출에 이르기까지 우연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으며 심리적 원인이 반드시 있다고 보았다.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이유가 의식되지 않을 뿐이며 우리의 꿈도 그 내용들이 무의식적 갈등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임상관찰을 통해 밝혀내

었다.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유아적 소망과 환상, 초자아의 금지와 이상(理想), 방어기제, 현실, 그리고 이를 중재하고자 하는 자아의 현실기능 등으로 범주화 할 수 있고 이들 간의 역동과 타협에 의해 인간의 행동과 증상이 결정된다고 보았다.²⁾

2.2. 무의식의 개념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을 인식수준에 따라 무의식, 전의식, 의식의 3개 층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무의식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장 심층적인 것이며, 전의식은 현재 인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식이 가능한 한 것이며, 의식은 현재 인식의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이다. 이를 정신분석학의 지형학적 이론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마음을 지구가 토양의 성분에 따라 다양한 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지형적 구성에 비유한 것이다.³⁾

그는 병산의 대부분이 물 속에 잠겨 있듯이 마음의 대부분은 무의식 속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성장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의식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나 기억을 무의식으로 몰아내는데 그 과정을 ‘억압’이라고 불렀다.

2.3. 성격의 삼원구조 이론

성격의 삼원구조 이론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에너지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하는데 원초아(Id), 초자아(Super Ego), 자아(Ego)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원초아는 추동이 일어날 때 이를 당장 충족시켜 쾌감과 만족을 얻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특징을 지니는데 이를 쾌락원리에 따른다고 한다. 프로이트는 원초아의 기본추동을 성추동과 공격추동으로 보았다. 이것은 성행위의 욕망이나 공격심과는 다르다. 성욕구는 생의 욕구, 사랑하고 의존하려는 욕구 등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프로이트는 삶과 사랑뿐 아니라 죽음과 파괴도 인간성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였다. 공격과 파괴가 사랑의 좌절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인간성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공격추동의 궁극목표는 ‘살아있는 것을 무기물 상태로 가져가는 것’이며 그래서 죽음의 추동(Todestrieb)이라고도 부른다. 사랑(성)과 죽음(파괴), 이 두 기본추동은 어디서나 같이 나타난다. 먹는 행위는 생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객체(음식물)를 파괴하는 것이며 성행위는 가장 친밀한 통일을 위한 공격이라 할 수 있다.⁴⁾ 강한 사랑에도 파괴 추동이 섞이며, 극한 공격에도 에로스가 섞인다.

초자아 역시 대부분 무의식적이다. 이는 사회규범과 이상적인 자기모습에 의거해 행동에 대해 내부로부터 선악의 판단을

2)원호택, Op. Cit., 1997, p.45

3)한국미술치료학회 편,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동아문화사, 1996, p.63

4)Freud, S., Abriss der Psychoanalyse, Frankfurt a. M. : Fischer, 1969

1)원호택, 이상심리학, 법문사, 1997, pp.63-65

내려서 그 행동을 촉진하거나 제약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자아는 쾌락원리가 아니라 현실원리에 따라 기능하며 원초아의 충동과 초자아, 현실 사이의 중재자이다. 즉각 만족하려는 원초아적 욕구가 때로 즉각 만족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인간의 정신상태가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현실과 원초아의 추동 사이를 중재하거나 추동만족을 지연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⁵⁾

2.4. 마음의 역동

정신분석학은 인간 정신이 원초아에 의한 욕망이 숨겨지는 무의식, 무의식적 동기유발에 대한 초자아의 견제, 의식에서 일어나는 자아의 현실검증 및 무의식적 동기유발과 동기조절이 충돌하였을 때 일시 피난하는 곳인 전의식 등 정신적 힘(에너지)이 끊임없이 상호작용 하는 역동적인 상태에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 행동은 이러한 정신적 힘의 작용이 신체를 통하여 외부세계로 표현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경험의 일부는 의식수준에서 현실검증을 거쳐 정보화되지만 현실적으로 수용이 곤란한 부분은 무의식화 된다고 생각하였다.⁶⁾

이성적, 직접적 방법으로 불안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붕괴의 위기에 처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고 및 행동수단을 방어기제라 한다. 이들은 비현실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작용한다. <표 1>은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방어기제들이다.

<표 1> 정신분석학의 주요 방어기제

방어기제	의 미
억압	불안, 고통을 일으키는 과거경험, 소망, 갈등의 표출을 무의식적으로 억누르는 것
부인	외부의 위협이나 외상적 사건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반동형성	무의식적 추동과는 정반대로 표현하는 것
투사	실제로는 자신이 경험하는 추동을 타인이 그러하다고 귀인하는 것
합리화	자신의 행동을 보다 수용가능하고 덜 위협적인 것으로 재해석하는 것
대치	가능하지 않은 추동대상을 비위협적이거나 이용 가능한 대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
승화	추동에너지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
주지화	자신의 감정을 차단하고 인지적으로만 위협적인 상황을 보려고 하는 것

2.5. 꿈의 중요성

프로이트는 꿈 심상을 분석하는 것이 정신분석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수면 중에는 자아의 방어기제가 약화되므로 억압된 무의식의 욕망과 감정이 의식표면에 떠오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아의 경계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아가 용납할 수 없는 욕구는 위장되고 상징화된 형태로 꿈속에 표현된다. 따라서 꿈의 내용에는 꿈에 나타난 그대로의 모습으로서의 ‘현재몽(顯在夢)’과 그 현재몽이

5)원호택, 이상심리학, 범문사, 1997, p.48
 6)한국미술치료학회 편,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동아문화사, 1996, p.63
 7)원호택, 이상심리학, 범문사, 1997, p.50

상징하고 있는 ‘잠재몽(潛在夢)’의 두 가지가 있다. 자아가 의식하기에는 고통스럽고 위협적인 잠재몽을 덜 고통스럽고 비위협적인 현재몽으로 바꾸는 작업을 ‘꿈의 작업’이라고 하였다.⁸⁾

프로이트는 꿈이란 금지된 욕구를 숨기는 데 사용되는 재현력(representability), 전치(displacement), 압축(condensation), 상징화(symbolization)의 네 가지 메커니즘에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⁹⁾ 프로이트는 이 모든 메커니즘을 해석할 수 있을 때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가 된다고 하였다.¹⁰⁾

2.6. 성심리적 발달단계

프로이트는 성본능의 에너지를 리비도(libido)라 불렀는데 성심리적 발달단계는 이 리비도가 어디로 옮겨가느냐에 따라 나뉜다고 생각하였다. 각 단계들은 그 자체에 갈등을 지니고 있으며 신체의 특정 부위와 연결된다. 생후 18개월까지는 이 리비도가 입에 머무는 구강기, 8개월에서 4세까지는 항문에 머무는 항문기, 3~7세까지는 남근기로 발달되어 가며, 남근기의 끝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¹¹⁾가 억압을 받게 되면 리비도의 쾌감 추구는 일시 중단된 채 잠복기로 접어든다. 잠복된 리비도는 사춘기가 되면 다시 소생하여 성인형인 이성애에 대한 성욕으로 발달된다.

그는 이 발달이론에 의거해 동성애자가 되는 과정도 설명하였는데 동성애가 발달단계에서 유아 때의 구강기적 욕구충족에 고착되어 자가성애(Narcissism)로 돌아간 것이며 자신을 어머니의 위치에 놓아 어머니와 일치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즉 청소년이 된 아이가 사랑하는 소년들은,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했듯이 아이가 사랑한 자기 자신의 분신들이라는 것이다.¹²⁾

2.7. 소결

이상으로 조형에서의 무의식 욕구표현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중요 개념들을 정리해 보았다. 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은 네 개 이론의 카테고리 분류하여 이를 ‘4

8)이장호, 상담심리학 입문, 박영사, 1984, p.52
 9)3.3.절 <그림 8>과 설명 참조 ; 이 그림에 대한 설명에서 꿈의 4가지 메커니즘을 통한 해석을 시도함.
 10)로리 슈나이더 애덤스, 미술사방법론, 조형교육, 1999, p.225
 11)그리스신화 오이디푸스에서 딸 딸로서 정신분석학에서 남아가 어머니에게 애착을 느껴 아버지를 자신의 경쟁자로 여기는 심리현상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프로이트는 이 경향이 남근기(3~5세)에 분명하게 나타나며 잠재기에는 억압된다고 하였다. ‘아버지처럼 자유롭게 어머니를 사랑하고 싶다’는 소망은 ‘아버지와 같이 되고 싶다’는 소망으로 변하여 부친과의 동일시가 이루어지며 여기에서 초자아가 형성된다. 프로이트는 유아는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를 극복하고서야 비로소 성인의 정상적인 성애가 발전한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여자 아이가 부친에 대해 성적 애착을 가지며 모친에 대하여 증오심을 가지는 성향을 엘렉트라 콤플렉스(Electra complex)라 한다.
 12)지그문트 프로이트, 예술, 문학, 정신분석, 열린책들, 1910, pp.211-212

장 현대 공간디자인에 나타난 무의식 욕구의 표현유형과 사례 분석'의 분류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그림 1>

첫째, 성격구조 이론이다. 이는 인간의 마음구조를 원초아, 자아, 초자아로 분류한 것이며 이 중 조형에서 자주 표현되는 것은 원초아의 기본추동, 즉 성추동과 공격추동이다.

둘째, 성격지형 이론이다. 이는 인간의 마음을 인식 수준에 따라 무의식, 전의식, 의식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형에서 자주 표현되는 것이 '꿈의 이미지'이다. 꿈은 억압된 무의식적 욕망이 잠자는 동안 자아의 통제가 느슨한 틈을 타서 의식표면에 떠오르게 되는 현상인 것으로 보았다.



<그림 1> 정신분석 이론의 구성

셋째, 성격역동 이론이다. 이는 인간의 마음이 원초아의 욕망, 초자아의 견제, 자아의 현실검증이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조형에서 자주 표현되는 것은 원초아의 욕구가 자아의 현실검증에 걸려 자기방어기제가 작동되는 상태, 특히 억압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미지들이다.

넷째, 성격발달 이론이다. 이는 성본능 에너지(리비도)가 어디로 옮겨 가는가에 따른 발달이론을 제시한 것이다. 조형에서 많이 표현되는 것은 자가성애와 관련된 동성애에 대한 것이다.

3. 정신분석학이 조형에 도입되는 방법

3장에서는 본고의 증점논의 주제의 하나인 정신분석학적 접근에 의한 방법론과 연구결과론이 조형에 도입되어 온 방법을 3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논의한다. 이것은 4장에서 공간디자인에 나타난 무의식 욕구의 표현사례들을 분석할 때 분석방법론으로도 적용될 것이다.

3.1. 창조성 탐색 과정에의 도입

이것은 작가가 무의식의 내용을 작품에 표현하기 위해 무의식을 탐색하는 과정에 정신분석학의 무의식 탐구방법론을 도입하거나, 무의식적인 본능에 의해 촉발된 예술창조의 과정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정신분석학 발표 후, 그 영향력은 모든 사회, 문화, 예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예술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조는 초현실주의¹³⁾였다. 이의 기본사상은 인간 상상

력의 해방이며,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도달한 막다른 길에 대한 반격이었다. 이를 위해 정신분석학 연구결과론으로써의 무의식 존재를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신경증 치료를 위해 환자들의 무의식을 탐색하는데 사용했던 방법론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들은 이성의 통제가 없는 초현실성을 인정하고 무의식을 인식수준으로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였다. 초현실주의 초기에는 수면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최면, 자유연상법¹⁴⁾, 자동기술법 (Automatism)¹⁵⁾, 꿈의 기술, 영매술적 실험 등이 많이 행해졌다. 이들은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탐구한 무의식의 불가사의한 이미지들을 그들 작품 속에서 자유로이 전개시켜 나갔다. <그림 2>는 초현실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그림 2> Duchamp, The Bride Stripped Bare by Her Bachelors, Even (The Large Glass), 1915-23, Philadelphia Museum of Art

미쳤던 뒤상의 작품인데 그는 무의식이 만들어 내는 우연성을 작품을 구성하는 방법론으로 받아들였던 작가였다. <그림 2>의 작품도 운반 도중 사고로 유리에 금이 가게 되었는데 그는 그 우연이 만들어 낸 형상이 작품을 완성시켰다고 선언하였다.

정신분석학에 의하면 예술의 창조과정은 무의식적인 본능에 의해 촉발되지만 이성의 종합적인 작용으로 조절, 형성되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창조성이 목적(보통 성적, 충동적, 공격적인)과 대상(목적이 향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진 본능으로부터 촉발된다고 하였다. 발달단계에서 아이는 본래의(유아기)의 목적을 떠나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다른 목적을 향해 본능을 새로운 방향으로 돌리기 시작한다. 프로이트는 이 과정을 승화라고 하였다. 예술가가 작품을 창조할 때 그는 무의식 속에 있는 과거 유아기의 본능을 일깨워 승화의 과정을 통해 그것을 현재 시점에서 유기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¹⁶⁾

이러한 창조적 작업과정을 규명함과 동시에 프로이트는 본질상 회화적인 보편적 환상들을 규정하였는데 성추동과 공격추동, 꿈의 상징성, 억압의 이미지, 동성애적 이미지 등은 미술사

인 예술운동이다. 원래 문학운동인데 브레통(Andre Breton)에 의해 결성되었고 1924년과 1929년에 '초현실주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20세기에 등장한 다른 전위적인 예술운동들에 비해 양차 세계대전 동안 가장 폭넓게 확산되었으며 논쟁적인 예술운동이 되었다.

14)특정한 자극을 주지 않고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차례차례 반응시키는 정신분석적 진단법의 하나이다. 자유연상법으로 얻어지는 반응어의 내용, 빈도 및 반응시간은 임상적 진단, 말의 유의미의 정도, 많은 말 상호간의 의미 관계, 언어 발달의 정도 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유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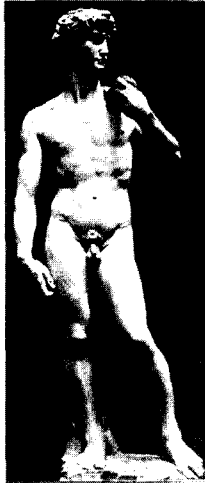
15)습관적 기법이나 고정관념, 이성 등의 영향을 배제하고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특히 잠든 것도 아니고 깨어 있는 것도 아닌 중간 상태가 좋은데, 여기서 자연히 표출되는 선이나 형태 또는 말은 무의식 세계를 투영한다.

16)로리 슈나이더 에덜스, 미술사방법론, 조형교육, 1999, pp.226-227

13)초현실주의(Surrealism) ; 1차대전 종전 이듬해인 1919년부터 2차대전 발발 직후까지 약 20년 동안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전위적

전체를 통해 그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는 무의식의 내용들이다. 특히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최초의 장면'¹⁷⁾은 예술가들에 의해 자주 표현되는 것들이다.

<그림 3>은 작가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작품창작에 영향을 미친 사례이다. 오이디푸스적 동인의 모습은 다윗과 골리앗을 표현한 미술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미켈란젤로의 '다윗'은 아직 적을 죽이지 않고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모습이다. 오이디푸스적 맥락에서 볼 때 이는 곧 범할 상징적인 부친살해에 대한 주저를 표현한다.¹⁸⁾ 이것은 미켈란젤로가 개인적으로 이 작품과 자신을 동일시했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지지된다.¹⁹⁾



<그림 3> Michelangelo, David, 1504

3.2. 작품표현에의 도입

이것은 정신분석학에서 연구해 낸 무의식의 작용과 욕구를 시각화하여 작품에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은 작가가 무의식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과정과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무의식적 표현

예술과 디자인이라는 창조적인 행위는 정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교육과 학습 등과 같이 작가 의식 내의 흐름에 의해 달성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작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작품에 반영되어지기도 한다.²⁰⁾ 이런 경우 겉으로 드러난 작품 형태는 무의식 욕구와 상관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그림 7>(다 빈치의 '두 명의 성녀와 아기 예수')이 이의 한 예이다.²¹⁾ 이런 작품에서 무의식 욕구를 분석해 내는 것은 정신분석학 방법론으로 작품 뿐 아니라 작가의 삶과 성장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전문적인 분석기법과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작품

17) '최초의 장면'이란 어른, 특히 부모의 성행위에 대한 어린이의 환상을 말한다. 그는 아이들이 부모가 밤에 무슨 일을 하는지 보고 싶어 한다는 것과 실제로 성행위를 하는 어른들을 보게 되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아이들은 보든, 안 보든, 그 일을 추측하며 그들의 탐구로 인해 소위 유아의 성이론들이 생기게 된다.

18) 로리 슈나이더 애덤스, 미술사방법론, 조형교육, 1999, pp.235-236

19) 로리 슈나이더 애덤스에 따르면, 미켈란젤로가 다윗을 새긴 원래의 대리석 덩어리는 '거인'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완성작의 양면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거대한 크기를 골리앗과 결부시킴으로써 미켈란젤로는 자기의 '거인'-조각가가 되고자 한다는 이유로 그를 때린 그의 아버지-을 물리친 셈이다. 그는 목동 다윗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그 대리석을 자신의 모습을 띠게 만들었다. '거인'이라는 대리석은 성경의 거인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 되었고 이것은 마치 미켈란젤로가 자기 예술에 대한 아버지의 반감을 '죽여야'했던 것과 같다.

20) 이완건, 의식과 무의식을 통한 한국현대건축의 전통성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41권, 2003, p.46

21) 3.3.절에 나오게 될 <그림 7>에 대한 설명 참조

의 무의식적 의미를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때로 작가는 의식하지 못한 채 표현했으나 감상자들은 그 작품 속에서 어렵지 않게 무의식 욕구를 읽어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림 4>의 작가



<그림 4> Daniel Ost,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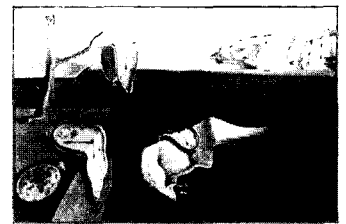
는 벨기에의 왕실 이벤트를 담당하는 디자이너이다. 이 경우 교회재단이라는 특수 환경으로 인해 성심리적인 욕구를 의도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흰색 툴립이라는 형태적으로 남성의 정자를 연상시키는 재료를 선택하였고 이를 줄기가 잘 드러나는 방식으로 배치함으로써 정자 이미지와의 연결이 더욱 쉬워진다. 또한 꽃들이 생기 있게 표현되기 보다는 모두 아래로 처져 매우 지쳐 있는 모습이다. 바로 위에 보이는 십자가의 도덕적인 위엄이 초자아의 이상적인 요구와 연결되며 이에 의해 원초아의 성적 욕구가 견제, 억압되는 모습을 감상자는 쉽게 읽을 수 있다.

(2) 의식적 표현

이것은 작가가 무의식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의도적인 방법으로, 따라서 감상자들도 그런 무의식의 욕구를 작품 속에서 의식적으로 대면할 수 있도록 작품에 표현하는 것이다.

이의 대표적 사례는 초현실주의로 인간심리의 무의식적인 불안, 욕구, 갈등 등을 의식화시켜 작품에 반영하였다. 이들은 꿈그림으로도 유명한데 이들의 꿈 그림들이 과거와 다른 점은 꿈의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서로 상관이 없는 대상들을 암시적으로 병치해 놓았다는 점이다. 이런 비논리적인 병치의 방법은 달리와 마그리트에 의해 특히 발전되었는데 이들의 모호, 혼란스러운 인상은 사실주의적 처리와 비현실적 주제 사이의 대조가 특징이다.<그림 5>



<그림 5> Dali, The Persistence of Memory, 1931

디자이너에서도 원초아의 성추동과 공격추동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사례를 보게 된다. <그림 6>은 패션디자이너에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한 예이다. 반투명의 의상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성추동을 나타내며 상처를 입은 얼굴의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 모델에게서는 매조키즘적 성향을, 그런 모델을 바라보



<그림 6> Antonio Berardi, 1997

며 잔혹하다기 보다는 섹시함을 느끼는 우리 자신에게서는 새디즘적 성향을 발견하게 한다.

3.3. 작품분석에의 도입

이것은 작품 속에 표현된 무의식적 상징의 내용을 분석하는데 정신분석학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이미지의 힘과 상징적 의미, 창조의 과정과 그 산물에 관심이 있으며 역사와 관계가 있다. 정신분석학적 작품분석 방법론은 미술사학자들이 작품을 해석하는 중요한 방법론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1) 개인적 전기 중심 분석

조형작품을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에는 한 작가의 일생과 그의 성장기의 경험을 주요 분석 자료로 사용하여 이를 작품의 상징적 의미와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다. 1910년에 프로이트가 쓴 레오나르도 다 빈치에 대한 심리분석적 전기²²⁾는 이 장르 최초의 글로써 이 글은 성인 예술가의 행동뿐 아니라 그의 그림과 글을 유년기의 발달단계와 연결짓는 프로이트의 방법론을 보여준다. 즉, 작품 자체만으로 작품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성장과정과 경험, 꿈과 성격, 중요한 사건들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통해 작품에 표현된 이미지들의 상징성을 밝혀내는 것이다. 이것은 프로이트가 신경증 환자의 무의식에 억압된 욕망이나 사건들을 찾아내기 위해 사용하던 방법론이며 그것을 예술작품에 표현된 무의식적 상징과 작가와의 상관성을 밝히는 데에도 사용한 것이다.

프로이트가 다 빈치의 '두 명의 성녀와 아기예수'(그림 7)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 것은(해석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작품에 표현된 어린 시절의 욕망을 분석한 예이다. 이 그림에 등장한 두 명의 어머니(예수의 어머니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다 빈치의 생모와 계모를 나타낸다. 그는 사생아로 어릴 때 생모를 떠나 아버지와 계모 밑에서 자랐다. 그가 자신의 환상 속에서 열망한 것은 생모의 애무이지만 실제로 얻은 것은 계모의 애무이다. 따라서 이 그림에 보이는 두 여인의 미소는 그의 욕망이 향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두 명의 어머니(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 그림은 그가 이룰 수 없었던 어린 시절 성적 욕구의 충족, 즉 어



<그림 7> Leonardo da Vinci, 두 명의 성녀와 아기예수

머니와 아들의 결합에의 소망을 대신하는 상징을 나타낸다. 프로이트는 이런 주장을 하기위해 다 빈치의 성장과정과 일생에 대한 방대한 자료들을 증거로 들어 설명하였다.

(2) 무의식 일반이론 중심 분석 (작품 중심 분석)

조형작품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분석 방법에는 위의 경우처럼 개인적 전기 중심으로 정보를 분석하지 않더라도 정신분석학 이론에 근거하여 무의식 욕구가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작품 내용과 이의 상징적 이미지들을 분석해 내는 경우도 있다.

<그림 8>은 작가의, 성장과정이나 경험에 대한 정보 없이 작품형태와 내용만 가지고도 무의식이론에서 말하는 꿈의 상징성과 최초의 장면



<그림 8> Henri Rousseau, Dream, 1910

분석학적 해석이 가능한 사례이다. 루소는 순진무구한 정신과 소박한 영상이 특징인 작가로, 이 그림도 자기 꿈에 나타난 이미지를 어린 아이 같은 이미지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의 상징성을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온다. 프로이트는 꿈이란 금지된 욕구를 숨기는데 사용되는 재현력, 전치, 압축, 상징화의 네 가지 메커니즘(2.5절에서 설명)에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 작품은 꿈을 꾸는 사람의 매혹되고 싶은 욕구(뱀을 부리는 사람)와 유혹하고 싶은 욕구(뱀)를 가장하는 네 가지 메커니즘을 모두 보여준다. 꿈꾸는 사람은 여성으로 그 자세는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와 마네의 '올랭피아'에 나오는 누드를 '재현'한다. 등받이의 자는 프랑스 화실에서 정글로 '전치'되었다. 이는 프랑스와 열대지방으로 분리되는 공간을 '압축'하는 것이다. 밝은 햇빛이 드는 하늘 가운데 달이 보이기 때문에 낮과 밤도 압축되었다. 꿈꾸는 사람 주위에 있는 뱀과 꽃들은 그 의미와 형태에 있어서 성적인 '상징'이며 어두운 열대림은 무의식의 본능적인 깊이를 상징한다.²³⁾

이 그림은 또한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최초의 장면'의 내용을 상징으로 위장하여 담고 있다. 정글은 야생적인 것과 결합되어 성적인 방임을, 소파는 문명화된 환경을 상징한다. 뱀이 다가옴에 따라 여자가 흥분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녀는 반인반수의 피리 부는 사람을 가리킨다. 바라보는 아이 역할을 하는 것은 유순한 사자인데 어떤 광경을 뚫어지게 보고 있다. 어린이들은 쉽게 동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종종 꿈과 동화 속에서 그렇게 표현되는데 이것이 프로이트가 유년기의

22)지그문트 프로이트, 예술·문학·정신분석·열린책들, (1910) 중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유년의 기억'

23)로리 슈나이더 애덤스, 미술사방법론, 조형교육, 1999, p.225

토텐성이라고 언급한 현상이다. 이 사자도 에덴동산의 유순한 동물을 상기시킨다. 에덴은 실제로 최초의 장면이 일어난 곳이다.²⁴⁾

3-2절에서 <그림 4>의 사례를 분석한 것도 무의식의 일반 이론에 근거하여 감상자들이 쉽게 발견해 낼 수 있는 성적 욕구와 자아의 억압 작용을 상징하는 이미지들을 분석한 경우이다.

4. 현대 공간디자인에 나타난 무의식 욕구의 표현유형과 사례분석

지금까지 정신분석학 이론과 이것이 조형에 적용되어 온 방식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고는 4장에서 현대 공간디자인에 나타난 무의식 욕구의 표현 사례를 분류, 분석할 때, 2장의 분류 기준과 3장의 분석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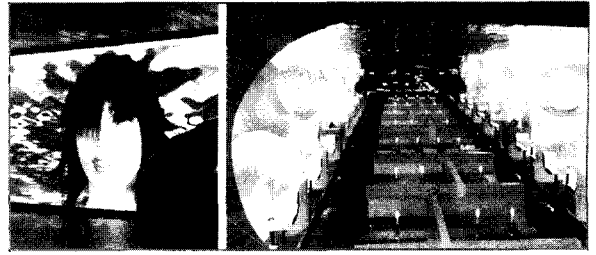
작품분석에 정신분석학을 활용하는 것은 한 작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다룰 때 주로 행하는 방법론이다. 그러나 본장의 주된 연구목적이 다양한 작품에 나타난 무의식 욕구의 표현 유형을 연구하여 공간디자인 표현의 시대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작가에 대해 개인적 전기 중심의 분석을 하기보다는 무의식 일반이론 중심으로 작품 중심 분석을 하여 여러 작가의 작품에 드러난 공간디자인의 시대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또한 작품에 표현된 무의식 욕구에 대해 작가가 의도적으로 표현한 사례를 분석함과 동시에, 작가는 의식하지 못한 채 표현하였지만 작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감상자들이 작품 속에서 무의식 욕구를 느끼게 되는 경우들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각 유형의 사례는 인테리어디자인, 전시디자인, 무대디자인, 공공환경디자인, 이벤트디자인 및 인테리어디자인과 제품디자인의 사이영역에 있는 가구디자인, 조명디자인에서 추출하고자 한다. 또한 모더니즘의 영향이 마무리되고 포스트모던의 사회, 문화적 경향이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이후의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1985년 이후의 디자인에서 사례를 추출하고자 한다.

4.1. 성격구조와 무의식의 기본추동 ; 성추동 & 공격추동

프로이드의 성격구조 이론에서 인간의 심리적 체계는 원초아, 자아, 초자아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이드는 이중에서 원초아가 일으키는 심리적인 기본추동의 충족 욕구가 심리적 갈등이나 왜곡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그는 성추동과 공격추동을 원초아의 기본추동으로 보았다.²⁵⁾ 이 두 가지는 현대 디자인에서 흔히 선택되는 주제이다.

24)로리 슈나이더 애덤스, Op. Cit., p.241
25)원호택, 이상심리학, 범문사, 1997, pp.46-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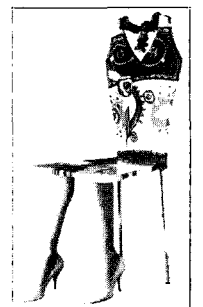
<그림 9> Karim Rashid, Masaharu Morimoto's Japanes Restaurant, 2001

<그림 9>는 카림 라시드가 디자인한 일식식당 인테리어이다. 입구에서 일본여자의 동영상에 손님에게 섹시하게 링크를 한다. 원래 디자인은 누드 여인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주인의 재고요청에 의해 바뀌었다. 식당 내부의 천정과 벽도 파상 형태와 변화하는 조명으로 디자인하여 꿈속의 정경처럼 연출하였다.

<그림 10>과 <그림 11>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형상화한 가구디자인으로 해체미학에서 말하는 전위 미학을 표현한 예이다. 전위는 무의식과 많은 연관을 갖는다. 어떤 물체를 본래 있던 곳에서 떼어냄으로써, 물체의 비현실적인 배치, 자연적 원근의 역전, 재질의 전환 등으로 고정관념에 도전하여 심리적 충격을 주는 동시에 신비로움을 유발해 낸다. 잠재의 식을 내포하며 사실적이며 구체적인 형상을 비논리적이고 모순된 결합으로 표현한다. 사물은 일상적 용도를 벗어나면서 그 현실성이 소멸되며 사물의 일상적인 의미도 희석되어 무의식적인 차원을 형성한다.²⁶⁾ <그림 10>과 <그림 11>은 여성의 다리와 전혀 연관되지 않았던 테이블이나 의자를



<그림 10> Ugo La Pie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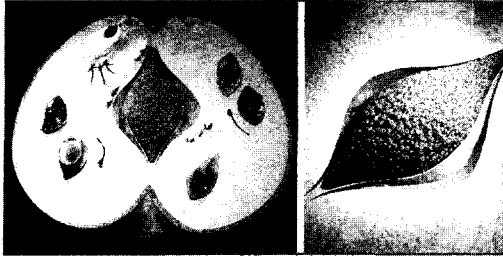
<그림 11> Raffaello Rossi, Coveri Chair

이와 결합시킴으로써 놀라움과 재미를 표현하였다. 테이블은 다리 발목부분을 묶어 놓아 여성에 대한 매조키즘 욕구도 드러낸다. <그림 11>은 의자에 앉은 행위자체가 성행위의 동작이 될 수 있어 성적 욕구가 강하게 암시되어 있는 경우이다.

<그림 12>의 테이블 대커레이션은 성분능이 가면을 쓰고 표출되는 양상을 표현한다. 꿈이 내용은 왜곡되고 비현실적이지만 그 외형은 현실적인 양상을 띠는 것처럼, 이 작품도 성적인 추동을 현실적으로 수용되기에 문제가 없는 티 테이블로 표현하고 있다. 테이블은 사과를 반으로 자른 모양이지만 동시에 여성의 성기를 상징한다. 가운데 가득 놓여진 작은 열매들은 티를 위한 다과임과 동시에 다산(多産), 또는 남성의 정액을 상징한다. 정신분석학은 이런 종류의 작품에서 보이는 성적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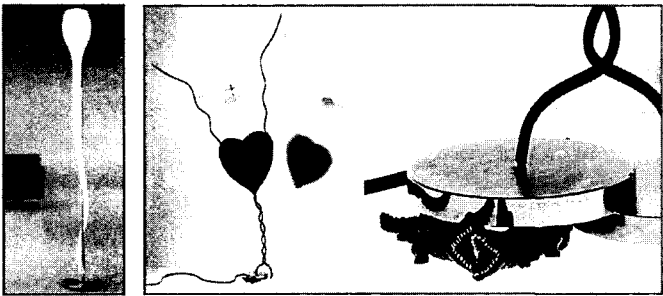
26)임광숙, 해체디자인의 문화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p.23

를 원초아의 욕구가 자아와 초자아의 통제에 느슨해진 틈을 타서 위장된 형태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한다.



<그림 12> Daniel Ost, 1998

<그림 13>은 조명디자인 사례이다. 남성의 정자를 형상화하여 생명의 근원으로써의 성추동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13> Alt, Sovra, 2001

<그림 14> Ingo Maurer, One From The Heart, 1989

<그림 14>는 여성의 성에 대한 숨겨진 공격성을 드러내는 잉고 마우어의 장난기 어린 조명디자인이다. 여성을 암시하는 하트모양의 스탠딩 램프 바닥에 공격성이 강한 어류의 대명사인 악어를 배치함으로써 여성을 성적으로 공격하려고 기회를 노리는 남성을 암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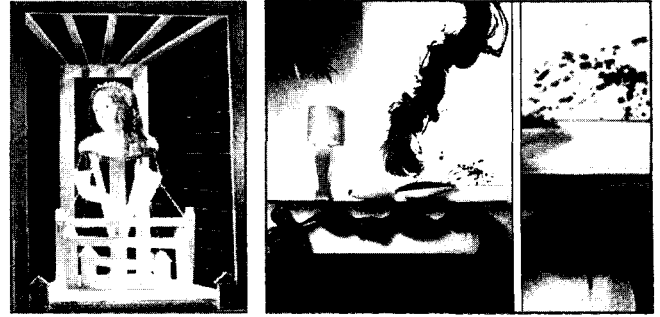
공격추동은 대체적으로 파괴적인 양상으로 표현된다. 프로이드는 공격과 파괴가 사랑의 좌절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인간성의 한 부분이라고



<그림 15> Ingo Maurer, Porca Miseria!, 2004

생각하였다. <그림 15>는 이런 인간의 파괴본능을 표현한다. 접시는 화가 날 때 집어던져 파괴하는 대표적인 대상의 하나이다. 이 작품은 깨트려진 접시 파편들의 형상을 한 조명디자인인데 사용자도 때로는 발산하고 싶어 하는 파괴본능에 대해 일종의 대리만족을 제공한다.

<그림 16>은 파괴본능이 인체를 대상으로 표현된 디스플레이 디자인이다. 여성신체를 분해시켜 놓음으로써 인간에 대한 공격추동을 표현했는데 절단된 신체형상은 타인에 대한 파괴, 또는 자학의 에너지를 느끼게 한다.



<그림 16> Peter Rank, Tiffany Display, 1994

<그림 17> Danny Lane, Patinated-Metal Tagliatelle Table, 2002

<그림 17>의 테이블은 상판과 테이블 다리를 연결시키기 위해 사용된 날카로운 금속파트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금속파트가 다리부분을 날카롭게 관통하는 모습이 매우 공격적이어서 불편함을 자아낸다. 더구나 테이블 위쪽 벽에 배치된 그림도 빨간색의 액체물질로 피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이런 피어싱(piercing)효과를 요동치는 테이블 다리의 형체 사이로 보일 듯 안보일 듯 미묘하게 처리해 놓아 항상 자아의 경계를 받으며 솟아오를 구멍을 찾는 무의식의 조심스러운 표출을 나타낸다.

<그림 18>

은 거대한 거미모양의 공공환경 조형물이다. 바라만 봐야하는 조형물이 아니라 사



<그림 18> 로꾸로꾸 플라자, 도쿄 롯본기힐즈,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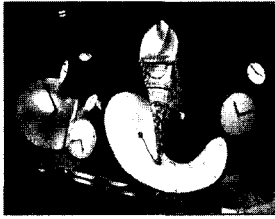
람들이 안팎으로 드나들며 즐기도록 구상되었다. 안에서 위를 쳐다보면 위협적인 느낌을 받지만 사람들이 이를 즐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인간은 공포영화를 무서워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공포가 주는 매조키즘의 쾌감을 추구하는데 이 조형물은 이런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자연스럽게 충족시키고 있다.

4.2. 성격지형과 무의식의 경계 ; 꿈의 이미지

프로이드의 성격지형 이론에서는 인간의 마음에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세 가지 의식과정이 있다고 한다. 꿈은 3가지 성격지형의 역동적 작용이 잘 드러나는 곳이다. 잠자는 사이에 자아의 경계가 느슨해지면 무의식의 에너지 역동이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면서 꿈에서 보는 형상들처럼 왜곡되고 비논리적인 병치현상들로 나타나게 된다. 다음 작품들은 왜곡된 형태, 의미의 모호함, 현실성과 비현실성의 비논리적인 병치 등 꿈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공간디자인 사례들이다.

<그림 19>는 달리의 '기억의 지속'<그림 5>을 보는 듯하다. 시계 형태의 비현실적인 왜곡뿐만 아니라 시계와 하이힐 구두, 에펠탑이라는 맥락 상 어울리는 않는 사물들의 비논리적인 병치 역시 꿈의 특질이다. 에펠탑 모양의 구두굽이 시계를 짓눌

러 형상을 왜곡시키고 있는 모습이 꿈을 꿀 때 자아의 경계가 느슨한 틈을 타서 솟아오르려는 무의식의 욕구가 완전히 경계를 풀지는 않은 자아에 의해 다시 억압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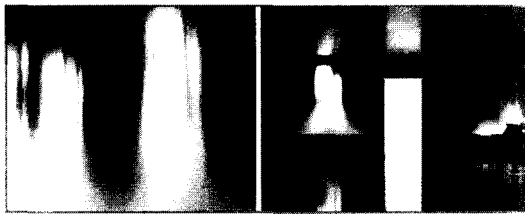
<그림 19> Shiseido Main Office Display, Optune, 1994



<그림 20> 도쿄 메종 헤르메스 디스플레이, 2004

<그림 20>의 디스플레이 디자인은 꿈의 특질 중의 하나인 현실과 비현실의 융합을 보여준다. 영상 속의 여인이 부는 바람은 분명 실제 존재할 수 없는데도 디스플레이 된 스카프는 이 여인이 부는 바람에 정확히 맞추어 나무끼기 때문에 마치 영상 속의 여인이 실제로 바람을 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이미지 자체는 왜곡된 것이 없지만 스카프라는 현실과 영상 속의 여인이 부는 바람이라는 비현실이 융합되어 의식의 현실성과 무의식의 비현실성의 경계 상태인 꿈의 특질을 표현한다.

<그림 21>은 레스토랑의 리셉션 공간이다. 레스토랑의 밝은 분위기와는 달



<그림 21> 하이아트호텔 레스토랑, 도쿄 롯본기힐즈, 2003

리 어둡고 환상적인 분위기로 연출하였다. 조명도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듯 연출하여 초현실주의 특유의 녹아내리는 듯한 변형의 이미지를 도입하였다. 레스토랑 입구가 무의식의 심연 끝에 있는 탈출구처럼 보인다.

<그림 22>는 수지, 플라스틱과 실리콘을 사용하여 꿈같은 환상적인 이미지로 디자인하였다. 머리형상은 남자와 여자 얼굴이 눈을 공유한 채 합쳐져 있고 조명도 구불 구불하게 높낮이를 달리하여 흩어져 있으므로 해서 더욱 비현실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그림 22> Gaetano Pesce, Grand Hotel Salone Installation, Milan Furniture Fair, 2002

<그림 23>은 천정의 반사 이미지로 인해 벽과 천정의 경계가 흐려져 있는데 이로 인해 실제(인테리어디자인)와 비실재(인테리어의 반사이미지)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 현실과 비현실,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모호한 꿈의 특질을 표현한다. 반

사면은 평평하지 않아 반사 이미지가 왜곡되도록 처리하였는데 이 왜곡된 공간감이 꿈과 같은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림 24>는 상들리에 디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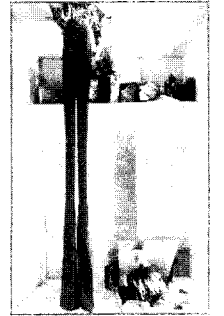
초현실주의 특유의 생체적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애벌레처럼 생긴 작은 형상들로 이루어져 있어 마치 천장에서



<그림 23> J. Maisel, Maisel's House & Office, 2002



<그림 24> Dale Chihuly, Orange Homet, 1993



<그림 25> David Hoey, Bergdorf Goodman Display, New York, 2004

벌레들이 기어 내려오고 있는 듯한 이미지이다. 비현실적인 사건이 현실적인 배경과 맥락에서 표현되는 현상이 현실과 비현실이 교차하는 꿈의 특성과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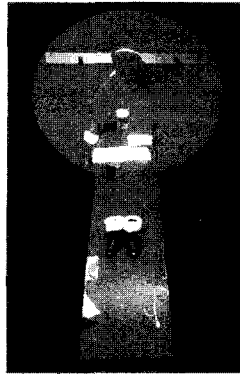
<그림 25> 역시 꿈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을 표현한 디스플레이 디자인으로 현실적인 이미지를 비현실적인 상황으로 나타내고 있다. 박스공간으로 묘사된 자아의 억압 작용에 교묘하게 간혀 있는 인간의 정신상태가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무의식의 추동 욕구가 박스공간을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상징되어 있다. 그러나 뚫고 나간 박스의 외부가 다시 원래 박스의 내부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자아의 억압에 의해 무의식에 갇혀버린 추동의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는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무의식의 특성도 표현하고 있다. 꿈에서는 자아의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무의식의 욕구가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욕구는 상징적이고 위장된 형태로 나타난다.

4.3. 성격역동과 무의식의 자기방어기제 ; 억압

성격역동이론에 의하면 무의식적인 불안, 갈등은 자아가 원초아의 추동을 적절히 만족, 또는 지연시키지 못하여 억압되어 있던 추동이 의식에 떠오르려는 힘이 강할 때 경험된다. 자아는 이런 신호에 접하면 방어기제를 동원하여 추동을 계속해서 무의식에 억압해 놓으려고 한다.²⁷⁾ 다음은 자아의 무의식적인 억압작용과 이를 뚫고 표출되려 하는 원초아의 추동 사이의 역동적 관계를 표현한 사례들이다.

27)원호택, 이상심리학, 법문사, 1997, p.49

<그림 26>은 심리극이나 심리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훑쳐보기'의 인간심리를 표현한 디스플레이이다. 훑쳐본다는 행위는 금지되고 억압되는 것일수록 더 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이다. 이 경우 훑쳐본 대상이 금지될 만한 것은 아니지만 디스플레이 연출에 이런 인간의 무의식적인 욕구를 반영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6> Kikuchi Central Park, Display, Christmas Part I, 1995

<그림 27>은 마그리트 그림<그림 28>의 불길한 꿈 이야기를 연상시킨다.

현실성과 비현실성이 비논리적인 병치로 혼재되어 있으며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다. 즉 사람들의 포즈는 자연스럽고 이완되어 있으나 자세히 보면 끈으로 온 몸이 뽁뽁 묶여 몹시 억압되어 있으며 이것은 이들의 이완된 포즈와는 비논리적인 병치를 이룬다. 명도, 채도가 모두 낮은 어두운 색상으로 처리되어 있어 무엇인가 암울한 분위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들의 자연스럽게 이완된 포즈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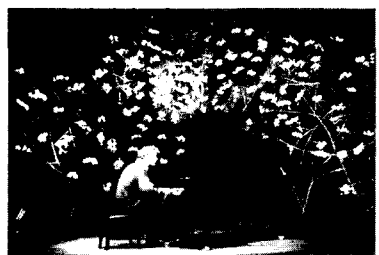


<그림 27> Carlos Brarezonsi, FORI, Caracas, Display, Venezuela, 1994

<그림 29>는 거미줄 같은 구조물과 흰색 꽃으로 연출한 무대디자인이다. 잡힌 생물체가 도망가는 것을 억제하는 거미줄의 기능이 무의식 욕구에 대한 자아의 억압 작용을 연상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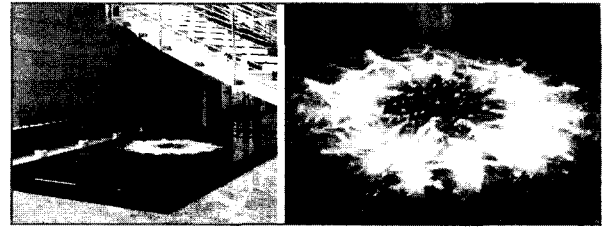


<그림 28> Rene Magritte, The Lovers, 1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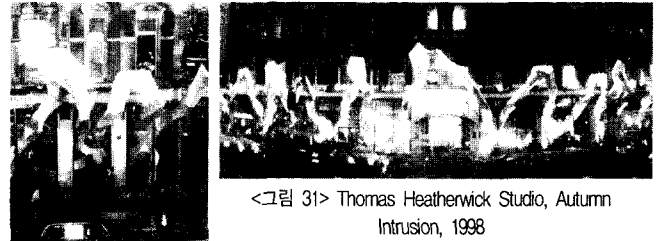


<그림 29> Daniel Ost, 1989

<그림 30>은 솟아오르지 못하는 분수디자인이다. 분수의 물 높이를 수면 바로 위까지 만으로 제한하여 마치 위에서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분수를 솟아오르지 못하게 억누르고 있는 듯하다. 억압되어 가라앉은 분수의 물결무늬가 분출구를 찾는 용암같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형상으로 되어있다. 기능적으로는 소음이 심하지 않아 실내에 배치되기에 적합한 분수디자인이다.



<그림 30> 하이아트호텔 로비 & 분수, 일본 도쿄 롯본기힐즈



<그림 31> Thomas Heatherwick Studio, Autumn Intrusion, 1998

<그림 31>은 추상적 형태의 선 형상과 사실적 이미지의 건물을 독특한 개성으로 결합하였다. 건물 안은 무의식의 심연, 그 속에서 스며 나오는 곡선의 형상들은 자아에 의해 억압되지만 끊임없이 탈출구를 찾는 본능적 욕구를 연상시킨다. 전체적으로 원초아와 초자아의 대립과 역동적 관계를 연상시킨다. 회전하는 힘의 방향성을 가진 선의 형상들이 건물보다 더 강한 에너지를 이루고 있다.



<그림 32> Ingo Maurer, Birds Birds Birds,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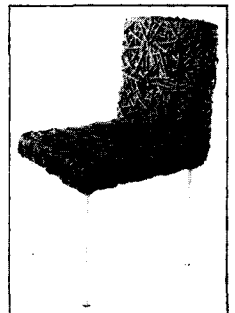


<그림 33> Ingo Maurer, Origia Dro, 1995

<그림 32>, <그림 33>은 억압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잉고 마우어의 조명디자인이다.

<그림 32>에서는 날아오르려는 새들의 욕구가 굵은 철선에 묶여 억압됨으로써 새들은 주변만 맴돌게 된다. 철선도 복잡하게 곡선으로 얽힘으로 인해 억압적 분위기 연출을 돕는다. 보이지 않는 새장에 갇힌 새들을 연상시킨다.

<그림 33>도 억압의 이미지이지만 암시적 이미지가 아닌 인간의 형상을 직접 도입하였고 직선을 사용하였다. 벌거벗은 사람들이 조명 중앙으로부터 탈출



<그림 34> Huberto & Fernando Campana, Verde, 1993-98. From Etra

하려는 듯이 밖을 향하여 달리고 있으며 이를 막으려는 듯 사람들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직선은 레이저 총의 광선같이 보여 긴박감을 자아낸다.

<그림 34>는 선들을 엮어서 제작한 의자디자인이다. 뽕뽕 싸맨 의자 속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듯한 느낌이다.

4.4. 성격발달과 리비도의 고착 ; 동성애 & 나르시시즘

프로이드는 동성애를 성본능의 에너지(리비도)가 유아기 때에 적절히 충족되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고착되어 유아기가 추구하는 자가성애(나르시시즘)적 성격특성에 머무는 현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음 예들은 무의식 욕구의 하나인 동성애와 나르시시즘의 이미지를 사용한 사례들이다.

<그림 35>의 디스플레이는 암시적으로 동성애를 나타낸다. 다소 남성스러운 의상을 입는 여성과 매우 여성스러운 의상을 입는 여성이 서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들 시선의 거리와 배치는 성적 친밀함을 암시한다.



<그림 35> Kelly Gray, St. Johns Boutique Display, New York, 2000

<그림 36>, <그림 37>은 촉감에 의해 성적 쾌감을 전달하는 조명디자인인데 사용자에게 따라 이성애도, 동성애도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6>은 여성 상체를 형상화한 스탠딩 램프(오른쪽 맨 뒤)이다. 열 발생이 적은 형광조명이기 때문에 사용자 취향에 따라 옷을 입히듯 장식을 첨가할 수 있다.(앞의 세 개) 그런 과정에서 여성 신체를 더듬는 듯한 성적 쾌감을 느끼게 하며 사용자가 여성인 경우 동성애적 쾌감을 제공한다.



<그림 36> Murano Due, Marilyn F., 2001

<그림 37>은 여성의 가슴을 형상화한 조명디자인이다. 여성을 애무하듯 센서를 문질러서 밝기를 조절한다. 이 과정이 성관계 시 애무를 통해 여성의 성적 흥분도가 올라가는 것과 같다. 이 역시 사용자가 여성인 경우 동성애적인 쾌감을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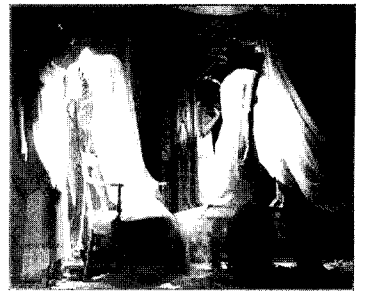


<그림 37> 김태준, Aphrodite, 2003

<그림 38>은 물에 비친 자기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진 그리스 신화의 나르시스처럼 거울에 비친 자기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는 인물을 묘사한 디스플레이 디자인이다.

<그림 39>는 꿈의 이중 암시성을 보여준다. 꿈에서는 의식의 경계가 느슨한 틈을 타서 무의식 욕구가 자꾸 표출되려 하지만 의식의 경계가 완전히 없지는 않기 때문에 가장된 형태로 표출된다는 것이 정신분석학의 주장이다. 꽃은 성적인 추구 대상으로서의 여성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많이 사용된다.



<그림 38> Linda Fargo, Bergdorf Goodman Display, New York, 2000



<그림 39> Shinjuku Mylord, Display, 1994

가운데 꽃을 향하여 4 명의 여인이 열망하는 모습은 충족되지 않은 성적 욕구, 특히 동성애의 대상을 향하는 무의식의 욕구가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정신분석학적 접근에 의한 조형에서의 무의식 욕구분석과 현대 공간디자인에의 적용유형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비이성, 무의식 탐구와 조형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택한 것은 21세기 사회의 새로운 가치체계 형성과 관련이 있다. 20세기 이성과 모더니즘의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사회, 문화 전반에서 다양화, 다변화를 수용하고 정신적, 비물질적 가치를 중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성, 지역성을 존중하고 이성적, 분석적, 과학적 사고에 의해 억압되어 왔던 인간 정신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프로이드의 이론에 대한 새로운 평가, 동양의 선, 도교 사상에 대한 관심도 이런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한 새로운 영역탐구의 시대적 조류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사회, 문화적 배경 하에서 무의식 탐구는 조형계와 공간디자인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인간의 무의식과 내면세계에 대한 탐구는 형태를 달리하며 지속될 것이다.

첫째, 조형적 가치에 대한 모더니즘의 획일적인 기준을 넘어서 수용자의 수용관점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런 수용관점의 다변화는 디자인 개념에 대한 이분법적, 획일적 사고를 불식시키는데 한 역할을 하였다.

둘째, 이성적 사고의 독선과 기존의 당위성에 도전하여 전위적, 실험적인 표현양식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그러나 다른 한편, 디자인에서의 이러한 무의식 탐구 경향은 아직 서양의 세계관과 사고방식의 변화가 가져온 이론적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인 면을 간과할 수 없다. 엄밀히 검토해 보면 이러한 인간내면의 탐구를 주도하는 사상들의 기본적인 개념들은 상대성, 다원성을 인정하고 개방성을 수용했던 동양의 전통적인 유기체적 세계관과 일맥상통하는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주체적인 흐름을 연구하여 이를 디자인에서 가시화하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 역시 이를 중요한 미래의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1. 로리 슈나이더 애덤스, 미술사방법론, 조형교육, 1999.
2. 문금희,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에 따라 나타난 현대 산업디자인의 제 경향, 한국디자인학회, 디자인학연구, vol. 15, no.3, 통권 45호, 2002.
3. 오창섭, 모던디자인의 디자인 사고에 대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디자인학연구, vol. 13, no. 1, 통권 34호, 2000.
4. 원호택, 이상심리학, 법문사, 1997.
5.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중앙일보사, 1996.
6. 이완건, 의식과 무의식을 통한 한국현대건축의 전통성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41권, 2003.
7. 임광숙, 해체디자인의 문화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8. 지그문트 프로이트, 예술, 문학, 정신분석, 열린책들, 1910.
9. 한국미술치료학회 편,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동아문화사, 1996.
10. Brigitte Fitoussi, Memphis, Thames and Hudson, 1998.
11. Chris Townsend, Rapture, Thames and Hudson, 2002.
12. De la Croix, Horst & Richard G. Tansey, Gardner's Art Through the Ages, Harcourt Brace Jovanovich, Publishers, 1986.
13. Freud, S., Abriss der Psychoanalyse, Frankfurt a. M., Fischer, 1969.
14. Patricia Bueno, Just Chairs, Harper Collins Publishers, 2003.
15. Stangos, Nikos, Concepts of Modern Art, Thames and Hudson, 1981.
16. Tamsin Blanchard, Antonio Berardi, Sex and Sensibility, Thames and Hudson, 1999.

<접수 : 2005. 2. 28>